

# 공공공간의 컨텍스트 표현 특성 연구

- 청계천 거리, 광화문 광장 사례를 중심으로 -

## A Study of the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of the Context of Public Space

- Focused on the Case of the CheongGye-Cheon and the Gwanghwamun Square -

Author                    용은영 Yong, Eun-Young / 정회원,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실내디자인전공 석사과정  
이 찬 Lee, Chan / 정회원,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실내디자인학과 정교수\*

Abstract                    In contemporary urban space, the identify is absent because of the object-oriented plans that ignore the context of urban space, and the ignorance of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historicity of places. Due to this reason, urban space lost its unique characteristics and becomes a mismatch with its surroundings. To solve these problems, the ideological trend of post-modernism emerged and new spatial paradigm rose based on the contextual concept to go with this trend. This contextual concept should be considered more importantly in the public space with discontinuous many and unspecified behavioral patterns. The components of space do not exist independently with individual identity. They should be considered based on a holistic view formed by the relations among elem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those relations, and through this, correct identity can be established. Thu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ontext of spatial components through new contextual views on public spaces and study the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unveiled between these relations.

Keywords                    컨텍스트, 공공공간, 공간 정체성, 표현특성  
Context, Public Space, Place Identity,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금까지의 도시 공간은 급속한 성장에 따라 기능적 역할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져왔으나, 오늘날의 도시 공간은 도시민의 다양한 삶과 의지가 반영되어 소통하고 끊임없이 생성되고 확장되는 유기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성과 변화를 수용하고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 공간 패러다임이 등장하였고, 많은 국가들이 문화도시·역사도시·생태도시 등 차별화된 공간 전략을 통해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변모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브랜드정체성 확립을 위한 공간 전략 요소로 공공공간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서울시도 기능 중심의 계획에서 벗어나 도시와 인간의 상호 관계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Soft City로의 변화를 선언하며 '디자인 서울'이란 이름 아래 공공공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였고 진행 중에 있다.

여기서 공공공간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간으로 무작위적인 행위 패턴을 나타낸다. 또한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하며, 주변에 존재하는 것들과의 상호 관계성을 통해 언제나 유동적으로 움직이며 변화하는 특성을 가진다. 즉 공공공간은 물리적·형태적 요소와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나 시간의 흐름, 이용자의 삶이나 행위에 의해 그 정체성이 확립되므로 공간 요소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컨텍스트적 접근이 필요하다.

건축이나 도시 공간에서의 컨텍스트에 대한 고려는 모더니즘 시대 기능주의 중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건축물과 환경의 심미적인 접근에 한정됨으로 그 한계를 드러낸다. 따라서 새로운 유기적 공간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컨텍스트적 접근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여 도시 공간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 관계를 중요시함으로써 전체로서의 도시 공간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공간을 새로운 컨텍스트적 개념을 바탕으로 접근하여 도시와 공공공간 요소들의 상호적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lc@kookmin.ac.kr

관계 고려를 통해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공간 사례를 분석하여 표현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공간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공공공간 계획의 방향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다.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상호 관계성이 중시된 새로운 컨텍스트적 접근에 의한 공공공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사례연구를 통해 나타나는 표현 특성 도출에 관한 연구로 설정한다. 따라서 국내외 학술자료 및 단행본을 통한 기초 문헌 조사를 통해 도시와 공공공간의 개념과 컨텍스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선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컨텍스트적 접근을 통한 공공공간의 이해와 함께, 공공공간의 특성을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현장 조사를 통한 사례들의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각각의 컨텍스트적 특성별로 공공공간에 나타나는 표현 특성이 지향해야 할 바를 정리한다.

분석의 대상은 최근 진행된 서울시의 공공공간 프로젝트 중 가장 대중적이고 방문객 수요가 많으며 현재 활성화 되어 있는 곳으로 청계천 거리와 광화문 광장을 선정하였다. 이는 기능과 구조 중심이었던 도시 공간을 ‘인간 중심’으로 탈바꿈하므로, 도시와 인간의 상호 관계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서울의 대표적 공공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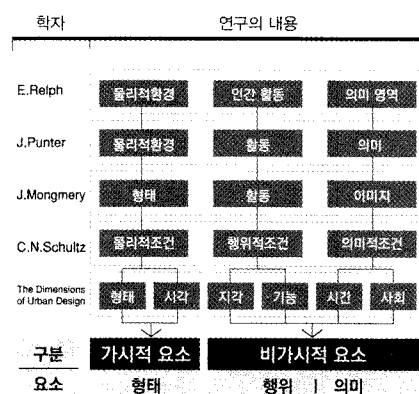
## 2. 이론적 고찰

### 2.1. 도시 공공공간의 이해와 공간요소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는 도시를 “인간의 다양한 삶들이 서로 관계를 형성하며 시간을 가지고 변화하는 유기체”라고 말한다. 이러한 도시 공간 개념은 최근 진행된 여러 국가들의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에서도 공통적으로 지향되는 시각이다. 대표적으로 1980년대 후반 미국의 ‘뉴어바니즘’<sup>1)</sup> 계획과 영국의 ‘어반빌리지’<sup>2)</sup> 운동이 있다. 이는 무분별한 개발과 성장 위주의 도시개발 패러다임에 의해 상실된 인간소외와 도시공간의 단절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각이었으며, 이후 1998년 이탈리아에서도 ‘슬로시티’<sup>3)</sup> 운동이 일어났고, 2005년 우리나라에서도 ‘살

고 싶은 도시 만들기’라는 노력으로 그 흐름이 이어졌다. 이는 기존의 획일적이고 효율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공공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질적 성장으로의 의식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최근 도시 공간의 패러다임은 ‘개체에서 집합’으로 ‘개별적 오브제에서 유기적 집합체’로 관심이 전환되고 있다. 즉 개개의 완성보다 상호 유기적 관계에 의해 생성되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기적 공간 패러다임에 의해 도시민의 삶과 소통이 중요해지면서, 인간 활동의 장이 결집되고 도시 공간을 매개하는 공공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공공공간은 다양한 계층의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공공에 의해 소유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의 집합적 열망과 기억이 반영되는 장소이다.<sup>4)</sup> 따라서 사적 공간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며, 공간의 장소성이나 사람들의 행위 또는 사회적 흐름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따라서 도시 공공공간은 단순한 오브제로써의 접근을 지양하고 도시 공간 사이에서 맺어지는 관계 중시라는 기본전제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에드워드 렐프(E.Relph, 1976)<sup>5)</sup>와 존 펀터(J.Punter, 1991), 몽고메리(J.Montgomery, 1991) 등 여러 도시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으며, 이러한 선행연구와 관련문헌에서 검토된 도시의 공공공간 구성요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크게 가시적 요소와 비가시적 요소로 구분되며, 가시적 요소는 환경·물리적인 ‘형태’로, 비가시적 요소는 역사적 사건이나 시간의 기억과 같은 ‘의미’와 함께 이용자의 삶이나 활동과 같은 ‘행위’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 공공공간의 요소

- 1) 1980년대 후반 미국에서 진행된 ‘뉴어바니즘’ 계획은 무분별한 도시공간의 확장 및 개발로 인해 야기된 환경 훼손과 공동체 의식의 상실을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개발 및 생태도시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는 도시 공간의 물리적·비물리적 가치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경관과 도시권을 위한 공공성을 회복하고자 함이었다.
- 2) 1980년대 후반 영국에도 기존의 전통적인 개발패턴의 폐해를 방지하고 새로운 도시개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어반빌리지’운동이 일어난다. 이는 지역 특성과 환경이 무시되고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도시를 지양하며 공적 공간을 중시한 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소통의 부재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 3) 1998년 이탈리아에서도 인간의 적응속도를 무시한 급격한 발전과

변화의 대안으로 ‘슬로시티’라는 슬로건 아래 인간의 삶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움직임이 형성되었다.

- 4) 어정연, 도시수변공간의 공공영역 장소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1, pp.18-19
- 5) 에드워드 렐프, 현상학적 관점으로 인간과 공간과의 관계를 해석함으로써 장소의 맥락성에 대한 이론을 구축하여 새로운 공간 개념이 정립되었다. 공간은 사물과 사물간의 상호 관계에 의해 인식되며, 사물은 다시 인간에게 영향을 발생시킨다. 즉, 도시 공간은 공간요소들의 관계에 의해 인식될 수 있으며, 이 요소는 물리적 환경, 인간의 활동, 그리고 의미 영역으로 이들의 관계에 의해 정체성이 확립된다고 보았다.

## 2.2.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변화

공공공간의 컨텍스트적 접근에 앞서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여 접근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컨텍스트 개념의 다학적 접근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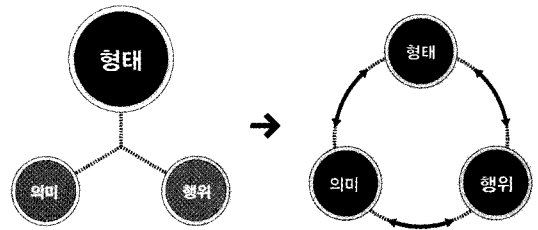
<표 1> 컨텍스트 개념의 다학적 접근

분야	내용	중심 키워드
미학	예술 작품 그 자체의 미적 감상에만 머무르지 말고 작품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요소들 즉 환경, 사회적 배경, 관련 지식 등 다양한 요소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접근을 강조	주변 요소들, 관계
언어학	한 문장에 비롯된 각각의 단어들 앞뒤 구문과의 논리적 관계에 의해 그 의미를 이해해야함을 강조. 즉 하나의 문학 작품은 완전히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요소들과의 상응관계에 의해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	상응관계
역사학	역사를 단절된 시간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역사의 연속적 흐름 안에서 총체적 시각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중요시함	연속적 흐름, 총체적 시각
인지 심리학	지각은 주변 컨텍스트의 영향을 받음. 즉 동일한 자극도 어떤 컨텍스트와 관계되어 지각되느냐에 따라 대상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의미	주변, 관계

즉 컨텍스트의 개념은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나, 하나의 대상은 독립적으로 파악될 수 없고, 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내재된 요소들과 그 관계를 중시하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안에서 총체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함을 공통적으로 의미한다.

이러한 컨텍스트에 대한 고려는 도시·건축 분야에서도 모더니즘적 사고가 가져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고려되기 시작했다. 이는 역사와 환경을 통해 개별적 건축물이 아닌 환경적 연속성에서 건축과 도시의 형태를 이해하려는 개념인 것이다.<sup>6)</sup> 하지만 기존의 컨텍스트적 접근은 공간의 형태적 요소에만 한정됨으로 도시 경관의 심미성 창출에만 집중하였다는 한계점을 드러낸다. 즉 개별적 요소들을 독립적인 대상으로서 이해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상호 관계에 집중하여 전체로서의 도시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는 여러 주변 요소의 총체적인 이해를 전제하며, 하나의 체계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안에서 의미 있게 존재함을 뜻한다. 즉 어떤 구조든지 상대적인 관계 안에서 필요에 의해 독립적으로 파악 가능함과 동시에 항상 주변 환경과의 상호, 교환, 접근 관계 안에 흡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sup>7)</sup> 따라서 도시변화의 흐름에 대응하는 동시에 공공공간에 대한 적합한 이해와 디자인적 접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림 2>와 같이 형태요소에 치우쳐 주변 환경과의 심미적 연속성에만 집중했던 근시안적 접근을 지양하고, 의미요소와 행위요소를 같은 위계로 이해하고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중시하는 총체적 시각을 전제하는 새로운 컨텍스트 개념이 성립된다.

6) Brent C. Brolin, 맥락적 건축, 이근택 역, 세진사, 1996, p.12  
7) 이호정, '도시, 장소 그리고 맥락', 태림문화사, 2007, p.34



<그림 2> 과거와 현재의 컨텍스트적 접근의 변화

## 2.3. 새로운 컨텍스트적 접근에 의한 공공공간 이해

본 절에서는 새로운 컨텍스트적 접근을 전제로 2장 1절에서 정리된 세 가지 공공공간 요소를 이해하고, 여기서 도출된 세 가지 특성과 함께 각각의 지향점은 다음과 같다.

### (1) 의미와 형태의 관계: 의미 생성적 특성

공간은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물리적 형태를 통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다. 기호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작용을 '의미 작용'이라 부르며, 기호의 내용이자 정신적인 측면의 '기의'가 의미의 운반체인 물리적 측면인 '기표'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은 공간을 구성하는 형태와 의미 요소간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즉 과거의 시간으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구축되어진 도시의 공공공간은 역사와 함께 미래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가 지각 가능한 물리적 형태에 담겨져 드러날 때 공간은 고정된 것이 아닌 무한히 열린 의미로 해석 가능해진다. 즉 의미생성을 통해 공간의 통시적 흐름 속에 새로운 의미를 경험하고 받아들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생성의 특성은 공간에 내재된 의미를 형태를 통해 이용자가 지각함으로써 이용자의 기억과 이미지를 상기시키며, 무엇보다 도시의 공공공간은 오랜 역사적 시간의 흐름을 누적하고 있으므로 공간에 시간성 등이 담겨질 때 공간의 깊이와 무게가 더해지고 지속적인 의미생성이 가능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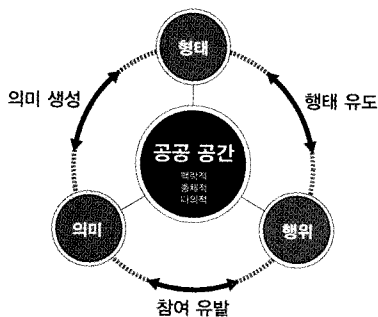
### (2) 형태와 행위의 관계: 형태 유도적 특성

의미 생성이 어떤 의미에 대해 인간의 심리에 일으키는 하나의 인식 작용을 바탕으로 이해되었다면, 형태 유도적 특성은 지각체계에 의해 받아들여진 형태에 대한 형태적 지원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환경 생태 지각론의 대표학자 깁슨(J. J. Gibson)에 의해 제시된 지원성(Affordance) 개념은 인간의 모든 행위는 끊임없는 형태와의 연속적인 과정 속에 이미지를 생성하고 종합적으로 공간을 판단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즉 공간을 경험하는 이용자의 지각과 행동의 순환과 상호작용으로 구성된 역학의 부분으로써, 형태와 인간 행위의 상호적 특성을 통해 형성된다. 예를 들어 길게 연결된 직선형태의 공간은 한 방향으로의 흐름을 유도하며, 공간의 경계부분에 형성된 의자 높이의 구조물은 앉는 행위를 유도하는 등 형

태에 맞는 행태가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간을 경험하는 이용자의 행위는 공간의 형식과 상호 작용하므로 적절한 계획을 통해 인간의 행태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공간의 특성을 규정하는 하나의 표현 특성이 된다. 즉, 행태유도의 특성은 공간의 구조 및 형식을 통해 이용자의 지각 및 감각을 자극하고 일련의 행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며, 주로 연속성의 형식은 흐름의 행태를 지원하고 비연속성의 형식은 결절형의 행태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행위와 의미의 관계: 참여 유발적 특성

앞서 언급되어진 대로 공공공간은 공공성을 형성하는 장소로서 의견을 전달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특성과 함께 사람들의 일상적 삶과 비일상적 이벤트를 동시에 담아내는 다의성을 가지는 장소이다. 따라서 형태 중심의 공간 계획에서 벗어나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움직임과 활동을 디자인 하는 Place Making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공공공간은 도시의 사회적 맥락을 포함하고 이용자 사이의 소통을 통한 공간으로의 참여를 전제할 때 진정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공간과 이용자의 활동을 고려하여 내재된 의미성을 프로그램화하며 참여를 통한 상호작용을 유연하게 발생시키거나, 문화와 휴식을 제공함으로써 정보 전달과 함께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 공유되는 방식으로 표현 될 수 있다. 이는 물리적·비물리적 개방성의 공공공간에 일상적인 도시민의 삶과 함께 이벤트적인 비일상성



<그림 3> 새로운 컨텍스트적 접근에 의한 공공공간의 특성 도출

을 수용함으로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 내며, 이와 같이 행위와 의미의 관계를 고려함으로 다양한 참여 유발이 이루어지는 공공공간이 될 때, 도시민의 삶은 더욱 풍부해지며 살아있는 도시를 형성하게 된다.

3. 사례를 통한 컨텍스트적 표현 특성 연구

본 장에서는 가시적·물리적 형태요소 뿐 만 아니라 그 공간을 점유하며 사용하는 사람들과도 연관 지어 행위와 의미 요소들의 관계에 대한 통합적 고려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계획의 개요를 살펴본 후 컨텍스트적 접근 특성에 의한 분석을 진행하여 그 내용을 종합하고, 향후 다른 공공공간 프로젝트에서도 적용 가능한 세부항목을 수립하여 구체화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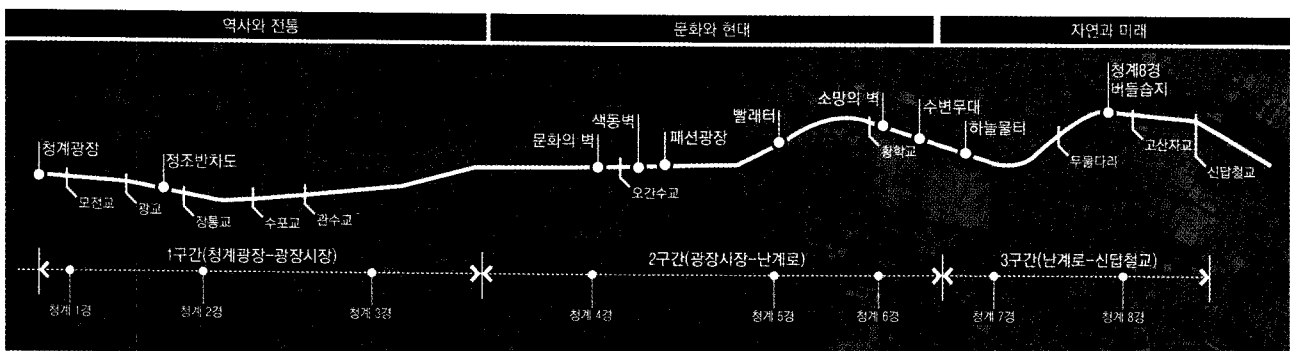
3.1. 분석의 대상 선정 및 개요

서울시는 최근 '디자인 서울'이라는 슬로건 아래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시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공공공간을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600년 역사의 전통을 살리는 동시에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소통하는 도심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청계천 거리와 광화문 광장은 도심공간에서 공공을 위한 대표적 공공공간으로, 현재 방문객과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서울의 랜드마크 공간이 되었다. 따라서 사례연구의 대상은 유기적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흐름에 따라 '인간 중심'의 도시공간으로 변모하고자 계획된 공공공간이다.

(1) 청계천 거리 개요

'청계천 거리 조성 사업'은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성동구 신답철교까지 이르는 구간으로 길이는 약 5.7km이며, 2003년 7월 계획이 발표된 후 2005년 9월 30일 시민들에게 공개되었다. 본 사업을 통해 청계천이 지니는 사회적 합의와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복개로 인해 단절되었던 도심의 수경 축을 회복함으로써 단절되었던 서울의 공간을 연결하고, 유적·유물의 발굴과 복원을 통해 역사성을 회복하였다. 또한 수변문



<그림 4> 디자인 개념도

화거리 조성으로 이용자의 증가와 함께 주변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궁과 종로와 동대문을 연결하는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탄생하였다. 물이 흐르는 본래의 하천으로 복원하고 생태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의 자연환경이 개선되고 도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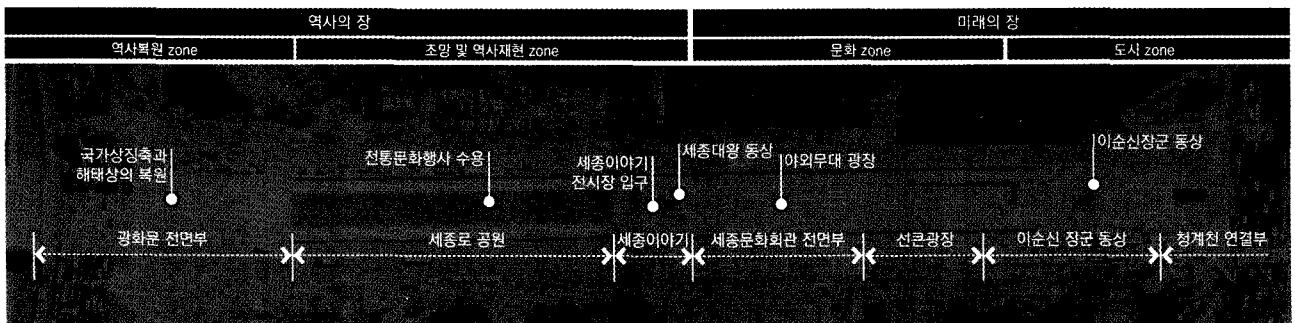
개발과정에서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2006년 공공디자인 대상을 수상으로 하루 평균 3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다든가 청계천은 이제 도심의 문화·휴식공간으로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민의 생활중심지로서 자리하면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도 대표적 관광 명소가 되고 있다.

(2) 광화문 광장 개요

‘광화문 복원 및 광장 조성 사업’은 2006년 12월 4일 광화문 제모습찾기 선포식을 시작으로 2009년 8월 완공되어 시민들에게 공개되었다. 경복궁-창덕궁-남대문으로 이어지는 역사 네트워크의 중심 공간인 광화문 광장은 ‘도심 남북 4대축 프로젝트’의 제 1 축에 해당한다. 본 사업의 목표는 600년 역사의 수도 서울의 정궁인 경복궁

적인 경관회복과 도시문화를 담아내는 상징적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이었다. 기존 왕복 16차선을 10차선으로 줄이고 도로 중앙에 너비 34m, 길이 557m로 조성되었으며, 역사와 문화공간 창조라는 목표아래 미래의 장과 역사의 장으로 나누고 다시 4개의 zone으로 구성된다. 먼저 미래의 장은 이순신 장군 동상 주변으로 조성된 휴식 공간을 도시zone, 세종문화회관과 야외무대 공간을 연계한 문화 zone으로 나뉜다. 그리고 역사의 장으로 경복궁과 인접한 공간은 종묘, 월대, 해태상 등 궁궐의 영역에 속한 요소들이 적용된 역사 복원 zone과 대규모 국가 행사를 치루며 도심축의 조망권 확보를 위한 공간으로 조망 및 역사 재현 zone으로 나뉘어 계획되었다.

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은 시민들의 주도아래 살아있는 이야기가 넘치는 생활 속 공간이라기보다 도시민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광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해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도시 공간과 시민의 삶의 소통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였으며, 역사적인 축의 개념을 상기시키려는 시도는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림 5> 디자인 개념도

과 서울 시청에 이르는 공간을 국가상징가로축의 조성, 역사·문화 공간 창출, 북악산·경복궁의 자연경관조망축의 연결을 통해 국가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서울의 대표

3.2. 사례별 특성 분석


(1) 청계천 거리

구간별 계획	대표 이미지	컨텍스트적 특성 분석		
		의미생성	행태유도	참여유발
청계광장 ~청계1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롭게 태어나는 청계천이란 의미를 조형물 'Spring'을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함</li> <li>저수호안석 배치를 통해 조선 8도를 상징화 하여 드러냄</li> <li>보자기 문양의 석재로 포장하여 전통의 요소를 드러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길을 따라 조성된 데크는 방향성 형성에 의해 이용자의 움직임의 방향을 유도함</li> <li>하천과 보행로의 경계부에 조성된 반원형의 석재 구조물은 원의 중심성을 제시함으로써 길의 행태를 유도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열린마당 조성으로 수변활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활동 수용함</li> <li>마당이 수용하는 사회적 기능을 통해 시민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의사소통 공간으로 활용됨</li> </ul>
광통교 ~청계2경 ~청계3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 석교(모전교와 광통교 등) 복원과 함께 기존 구조물을 일부 남기는 혼적의 방식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간의 통시적 의미를 상기시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결의 자연스런 흐름 연출을 통해 방향성에 따른 움직임의 행태를 유도함</li> <li>하천과 보행로의 경계는 낮은 단차 구성을 통해 자연스러운 동선의 흐름과 접근을 유도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 스트림 조성으로 미디어를 통한 전시가 이루어지며 이용자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센서를 통해 반응함으로써 다양한 참여와 흥미를 유발함</li> </ul>
청계3경 ~ 정조반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통교로 가는 길의 입면에 정조반차도를 그려 넣고, 전통적 돌쌓기를 통해 전통의 이미지를 구현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선형의 평면과 입면의 구성은 시선과 동선의 움직임적 행태에 방향성을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조대왕의 행렬을 도자벽화에 그려져 이용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전기수를 통해 역사적 이야기가 전달됨으로 이용자의 참여 유도 함</li> </ul>

문화의 벽 ~청계4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가 5인의 백자 타일 벽화 작업을 통해 미래로의 이미지를 전달함</li> <li>직물을 모티브로 한 색동벽 인면 설치는 주변에 위치한 동대문이라는 패션문화의 의미를 연상시킴</li> <li>옛 오간수문의 복원을 통해 과거의 한양성곽을 재현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램프를 통해 자연스럽게 수변으로 접근 가능해지며, 곳곳에 조성된 석재 구조물은 이용자에게 관광과 휴식의 행태를 지원함</li> <li>물길 중앙에 설치된 수직 분수는 이용자의 시선과 움직임의 중심을 형성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 위 런웨이 설치는 다양한 친수 활동 뿐 아니라, 패션문화 콘텐츠를 적극 반영하는 공간으로 패션쇼 등의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이 유발되며, 이러한 비일상적 이벤트는 이용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냄</li> </ul>
빨래터 ~청계5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빨래관석의 설치로 청계천의 옛 생활상을 상징적으로 재현하여 의미를 전달함</li> <li>전통적 돌쌓기를 통해 전통 이미지를 유추적 체계로 표현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석재 구조물과 식재의 선형 배치 구성이나 바닥재의 선적 배열은 공간의 방향성 형성</li> <li>다리 밑 구조물은 닫힌 시선과 공간의 비 물리적 경계를 형성함으로써 행위 중심의 영역성이 구축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천으로 접근이 용이한 공간 계획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친수활동을 유발함</li> <li>빨래터를 연상케 하는 콘텐츠 전시는 이용자의 관심과 문화 체험을 유도함</li> </ul>
소망의 벽 ~청계6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변 건축 프로그램을 상징하고 연결하는 조형물 설치로 공간의 의미를 통합화하며 확장시킴</li> <li>물길의 형태로 만들어진 소망의 벽은 시민의 마음과 도시의 하천이 유연한 흐름의 의미를 유추적 상징 체계로 전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직분수 설치로 공간의 중심성을 형성하여 이용자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행태의 결절을 형성함</li> <li>사선형태 인면 구조물은 공간의 연속성과 방향성을 다양하게 형성함으로써 이용자의 신체적 움직임과 접근을 유도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계천 복원에 대한 온 국민의 염원을 담은 글귀를 벽면에 설치하여 직접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용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함</li> <li>분수나 수변 데크 등의 친수 시설물 설치를 통해 이용자의 다양한 친수활동을 이끌어냄</li> </ul>
하늘물터와 조치교각 ~청계7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개 교각 잔해 등 개발시대의 흔적을 남겨두어 교훈적 의미를 전달함</li> <li>주변 용벽에 수직정원을 조성하여 회색의 교각과 녹색 용벽의 대비를 통해 청계천의 과거와 미래적 의미를 이용자들에게 상기시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 터널 공간은 공간의 범위를 구체화시킴으로써 이용자에게 영역성을 형성시킴</li> <li>터널분수는 벽면에서 하천 방향으로 연결되며 이는 시선의 연속성으로 전이되어 방향과 흐름을 형성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터 스크린을 배경으로 조성된 야외 무대는 영화나 공연 등의 프로그램이 유발되며, 이는 이용자의 관심과 참여 유발로 연결됨</li> </ul>
버들습지 ~청계8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태 하천으로의 복원과 습지 조성을 통해 도심 속 생태성 회복의 의미를 전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의 흐름에 따라 조성된 보행로는 시선의 방향을 다양하게 유도하고, 동선의 방향성 또한 형성시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태자연관찰데크의 조성은 이용자의 관찰과 친수활동을 유도함</li> </ul>
종합		구간별 컨셉을 표현할 수 있는 조형물이나 벽면 구성을 통해 상징적 의미 전달하고, 역사적 유물의 복원 및 재현을 통해 역사적 흔적을 공간에 담아냄으로써 유추의 체계에 의해 과거와 현재의 통시적 의미를 부여한다.	복원된 다리 밑의 구조물은 자연스럽게 이용자에게 공간을 한정시켜 행태 유도의 중심적 영역이 되게 함과 동시에 바닥재나 벽면 구조물의 연속과 비연속적 패턴 구성을 통해 이용자의 흐름과 결절의 행태를 유도한다.	하천이라는 속성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친수프로그램 개발로 친수활동 유발하고, 거리 갤러리나 문화 공연 등의 비일상적 이벤트는 이용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이용자의 참여를 유발한다.
표현특성		상징, 재현, 흔적, 전통, 유추	연속, 방향, 결절, 중심, 영역	프로그램, 체험, 활동, 이벤트

## (2) 광화문 광장

구간별 계획	대표 이미지	컨텍스트적 특성 분석		
		의미생성	행태유도	참여유발
광화문 전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궁궐 앞 공간'이라는 역사성 회복을 위해 월대재현 및 해태상의 역사적 정위치 복원</li> <li>포장패턴과 조명을 북한산과 관악산을 연결하는 배치구성을 통해 국가 상징축 복원의 의미를 표현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장 패턴과 조명을 이용하여 시선의 개방과 방향성을 제시함</li> <li>시각적 개방을 통해 어느 방향에서나 조망 확보가 가능함</li> <li>궁궐 앞 마당 공간과 광장이 4차선 도로로 나뉘어 이용자의 연속적인 행태가 단절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화문 앞 마당은 이용자들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며, 각종 이벤트와 전통 행사나 의식이 열림으로 이용자의 관심과 흥미가 유발됨</li> </ul>
역사 복원 z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옛 조선의 국가 중심지로었던 육조거리로의 의미를 회복시켜 국가의 전통성을 재현함</li> <li>600년 육조거리의 역사를 시간순으로 기록하여 그 위엄을 길이 흐르도록 통시적 의미를 회복시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면 구성에 있어 재료나 명암의 구분을 통해 공간적 범위를 비 물리적 단계에서 구체화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영역성을 형성시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조능 행사, 세종대왕 어가행렬이 재현 등 전통문화를 담아냄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시공간을 연결하고 이용자의 관심이 유도됨</li> </ul>
광화문 앞 광장 ~ 세종로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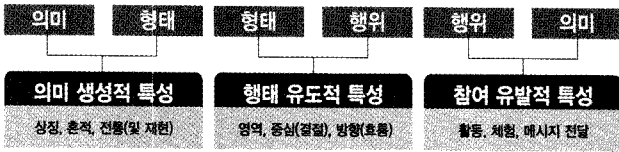
조망 및 역사 재현 z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종대왕 동상은 한국문화와 권위를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님</li> <li>바닥에 새겨진 세종대왕 연대기는 역사적 흔적으로써 사실적 역사의 의미를 전달함</li> <li>촉우기, 해시계 등 상징적 조형물은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 역할을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종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경복궁까지 이어지는 조망축의 연결을 통해 시선의 방향성이 형성됨</li> <li>동선에 따른 이용자의 시선의 변화를 고려하여 연속적 공간 흐름이 형성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도부와 광장의 바닥 포장을 통일함으로 세종문화회관과의 공간적 통합을 바탕으로 문화광장 기능으로 확대됨</li> <li>비상설 야외무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공간이 계획됨으로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를 유발함</li> </ul>
전시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종을 '빛'이라는 상징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의 의미를 전달함</li> <li>한글이 새겨진 투명한 벽체 위에 이용자의 모습이 반영되어 과거와 현재의 중첩을 통한 역사적 소통의 의미를 전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용자의 시선을 고려한 연속적 띠조명의 설치는 통로를 따라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빛을 통해 공간의 진행 방향 유도됨</li> <li>공간에 배치된 전시구조물은 이용자의 움직임과 시선이 중첩되는 결정형 행태를 유도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명한 전시 벽면을 통해 한글과 이용자의 모습이 중첩되어 드러남으로 이용자와 공간 사이에 상호 소통이 발생함</li> </ul>
문화 z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간에 따른 바닥 LED 점조명의 색 변화에 따라 공간의 이미지가 변화하는 효과를 통해 이용자의 감성을 활성화시켜 끊임없는 의미를 생성함</li> <li>주변에 조성된 벤치의 형태는 돛을 떠올리게 함으로 해전의 영웅 이순신을 연상케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화문 광장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이순신 동상은 공간의 결정점을 형성하여 중심으로 기능하고 이용자들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됨</li> <li>경계부에 설치된 벤치는 이용자의 앉고 모이는 행태를 지원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닥분수가 설치된 친수 공간은 빛과 만나 활기찬 도시의 야경을 만들어냄으로 이용자의 접근과 관심을 유도함</li> <li>때로는 물을 끊고 비워진 공간을 통해 광장 전체를 통합하여 이용자들의 관계와 소통이 채워지기도 함</li> </ul>
도시 z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디어 갤러리에는 이용자의 움직임이 벽면에 일시적 이미지로 나타남으로 공간에 동시적 의미가 반영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화문역에서의 접근성이 고려된 sikn 광장은 경사로를 따라 이동시 자연스럽게 이용자의 시선이 광화문과 북악산을 향한 방향성을 형성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사로 벽면에 IT메시지 보드 설치로 이용자의 행위 작용과 공간에 의미가 드러나는 반작용을 통한 상호 작용성에 따라 능동적인 참여가 유발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칭계천으로 내려가는 수경축을 연장함으로 서울의 역사 물길의 풍수적 은유를 상징화함</li> <li>전통문양을 차용한 바닥패턴 사용은 과거와 현재의 소통적 의미를 생성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화문의 물길과 칭계천이 이어지는 연결로 조성으로 자연스러운 동선 흐름을 유도함</li> <li>바닥의 명암 구분을 통한 경계 형성은 비 물리적 영역으로 지각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장과 칭계천의 연결부는 비워진 공간으로 일시적인 형태의 이벤트와 이용자의 참여가 유발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종합</p>	<p>주로 형태의 직접 차용에 의한 상징물을 매개로한 역사·전통의 의미 전달이 이루어진다. 전통문양을 현대적 해석의 차용에 의한 바닥패턴은 내재된 전통의 의미를 상징의 체계로 표현하여 시간적 이미지를 상기시킴으로 과거와 현재의 소통적 의미 가치를 전달한다.</p>	<p>중심을 형성하는 구조물 주변이나 경계부 주위로 모이거나 쉬는 결정형 행태가 주로 발생하고, 장방형의 공간은 주로 상하 방향으로 이용자의 움직임을 유도한다. 그러나 대부분 개방성을 통한 공간 구성으로 머무르기보다 지나가는 통로로써 기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드러난다.</p>	<p>문화 이벤트는 이용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발하며, 주변의 문화시설과 연결된 열린 공간은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발한다. 친수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이끌어냄으로 공간으로의 참여를 유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표현특성</p>	<p>상징, 전통, 연상</p>	<p>중심, 연속, 결정, 경계, 방향</p>	<p>이벤트, 프로그램, 활동, 체험</p>

### 3.3. 소결

앞의 사례분석을 통해 컨텍스트적 접근에 의한 표현특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미 생성적 표현 특성은 역사 유적의 복원 및 재현이나 기념비적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의 직접적인 상징 표현과, 전통적 구축 방법의 차용이나 전통 패턴의 현대적 재구성 또는 혼적 전시를 통한 은유적이고 연상적인 체계를 통한 상징 표현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물리적 형태요소는 비언어적 체계에 의한 의미 전달의 매개가 되며, 시간의 축적에 따라 내재된 공간의 역사 및 전통의 의미가 공간의 형태 요소를 통해 전달될 때 공간의 깊이와 무게가 더해지며, 지속적인 공간의 의미 생성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행태 유도적 표현 특성은 물리적·형태적 환경 구조물을 통해 이용자의 움직임과 경험 방식을 유도하는 지원

성의 방식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연속성의 수법이나 구성은 방향성을 제시함으로 흐름에 의한 행태를 지원하고, 비연속성의 배치와 구성은 영역화와 중심을 형성하여 머무름, 모이는 등의 결정형 행태를 지원한다. 즉, 공간을 구성하는 형태 유도적 특성의 표현은 이용자에게 특정 행태를 전달 및 지시하는 요소로써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 유발적 표현 특성은 다양한 공간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통해 공연이나 축제 이벤트가 열림으로 이용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거나, 때로는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열린 공간으로써 공공공간이 지닌 매개 역할에 대응하는 접근방식이며, 고정적 관계가 아닌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 소통하는 관계형성을 통해 능동적인 공간으로의 참여를 돕는다. 이리

한 분석의 종합을 바탕으로 각각의 특성별 표현 특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6> 컨텍스트적 접근에 의한 공공공간의 표현 특성

이상 정리된 표현 특성을 토대로 분석지표를 세분화하여 표현의 정도를 강●, 중○, 약○으로 표기하여 정리 분석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는 향후 다른 공공공간 프로젝트의 컨텍스트적 접근의 방향을 구체화하여 적용가능토록 하기 위함이다.

<표 2> 청계천 거리 종합 분석

구분	의미 생성적 특성			행태 유도적 특성			참여 유발적 특성		
	상징	흔적	전통	영역	중심	방향	활동	체험	메시지 전달
청계광장 ~청계1경	●	○	○	●	○	●	●	○	○
청계2경 ~청계3경	○	●	●	○	○	●	●	○	○
청계3경 ~청조반차도	○	○	●	○	○	●	●	○	○
문화의 벽 ~청계4경	●	●	○	○	○	●	●	●	○
빨래터 ~청계5경	●	○	○	●	○	●	●	○	○
소망의 벽 ~청계6경	●	○	○	○	○	●	●	○	○
하늘물터 ~청계7경	○	●	○	●	○	●	●	○	○
버들습지 ~청계8경	○	○	○	○	○	○	●	○	○

이러한 종합분석을 통해 청계천 거리는 우선적으로 광통교 복원 등 청계천과 관련된 역사·문화재의 복원 및 재현이 공간 구성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상징, 흔적, 전통의 표현으로 골고루 표현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심의 개발주의 패러다임에 희생되었던 역사적 가치를 회복함으로써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의미생성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며, 장소적 가치를 회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물리적 환경 구조물의 다양한 구성과 의도적 배치를 통해 움직임과 멈춤의 방향의 표현 특성과 함께 모임과 흠어짐 등의 중심과 영역의 표현 특성 또한 발견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하천의 흐름을 따라 방향을 제시·유도하는 행태 유도적 특성의 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하천이라는 기본 속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기본 계획의 맥락에 따라 다양한 친수시설의 설치에 이용자의 수변활동 활성화를 통한 활동과 체험의 참여 유발적 특성의 표현이 주를 이루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표 3> 광화문 광장 종합 분석

구분	의미 생성적 특성			행태 유도적 특성			참여 유발적 특성		
	상징	흔적	전통	영역	중심	방향	활동	체험	메시지 전달
역사 zone	광화문 전면	●	○	●	○	○	○	○	○
	세종로 공원	●	○	●	○	○	○	○	○
조망 zone	세종문화회관 전면	●	○	○	○	○	○	○	○
전시 공간	세종 이야기	○	○	○	○	○	○	○	○
문화 zone	이순신 장군동상	○	○	○	○	○	○	○	○
광장 zone	선릉 광장	○	○	○	○	○	○	○	○
	청계천 연결부	○	○	○	○	○	○	○	○

광화문 광장은 구간별 표현특성이 확연히 구별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역사zone구간은 의미 생성적 특성이 강하게 표현되었으며, 문화zone과 광장 zone구간은 참여 유발적 특성이 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하나의 공공공간에서도 구간별 계획의 방향에 따라 어떤 표현특성을 통해 공간의 정체성이 드러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의미 생성적 특성에서는 동상이나 조형물 설치 등의 직접상징에 의한 일차적 의미 전달체계로만 구성되어 있는 점과 과밀한 배치로 인해 연속적인 행태를 단절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며, 광장의 문화·역사적 의미를 다양한 표현 특성을 통해 드러내고, 행태를 지원하는 요소들의 구성 또한 다양하게 확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의 내용을 종합하여 세부 항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의미 생성적 특성에 있어 상징은, 공간의 의미를 이용자와 매개시키는 표현 요소이며, 이러한 표현 방식을 통해 이용자의 인지와 연상 작용에 의해 공간에 내재되어 있는 비 물리적 의미들을 전달함으로써 이용자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의미생성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흔적은, 상징보다 좀 더 사실적인 방식으로 주로 기록이나 흔적의 방식을 통해 표현된다. 그리고 전통은, 과거에 존재하던 것들에 대한 의식이나 사상 등과 같은 내면세계를 담고 있는 의미적 기호를 외연적 존재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주로 직접적인 재현이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한 형태적 적용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행태 유도적 특성에 있어 영역은, 공간의 범위를 구획화 해주는 경계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며, 주된 표현 방식으로는 물리적 구조물을 통한 경계 형성이나, 색채 및 재료의 방식을 달리하여 경계를 구분하는 방식이 있다. 또한 중심은, 공간에 있어 이용자들의 행태와 만남을 촉진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주로 공간에 형성된 중심은 결절점을 형성함으로써 이용자의 행태를 모으는 구심적 역할을 하며, 구조물의 배치를 통해 상징적인 중심 또는 벤치 등



의 시설물 배치를 통한 행태적 중심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방향은, 공간의 구조에 의한 관계 및 위계에 의해 형성되며 기본적으로 공간의 통일성을 확립시켜준다. 이는 통로라는 강제적 구조를 통한 움직임 유도 또는 조도의 차이나 구조물의 연속적 배치 등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 유발적 특성에 있어 활동은, 공공공간의 문화와 휴식 제공이라는 요구를 만족시킨다. 즉 다양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공공간을 통해 도시민의 삶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는 것인데, 이는 주로 전시나 공연과 같은 프로그램 요소들을 통해 표현된다. 또한 체험은, 공간과 이용자 간의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상호관계를 전제하는 것으로 공간의 의미와 이용자의 행위를 소통하게 함으로 경험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메시지 전달은, 열린 공간에 대한 이용자들의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냄으로 사회적 의미의 중심인 동시에 사람들의 이야기와 의미가 채워져 하나의 메시지로 표출되는 특성 요소이다. 주로 광장과 같이 물리적 비율을 통해 이용자의 접근과 이용을 활성화하거나, 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정보 전달의 방법 등으로 표현된다.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우선적으로 기존의 형태위주의 접근을 지양하고 내재된 요소들의 일련의 연속적 상호 관계를 중시하는 컨텍스트적 접근을 통해 공공공간을 이해함으로 의미와 형태의 관계에서는 의미 생성, 형태와 행위의 관계에서는 행태 유도, 행위와 의미의 관계에서는 참여 유발적 접근 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세 가지 접근으로 공공공간 사례를 분석하여 공통적인 표현 특성을 정리한 결과 의미 생성적 접근에 의해서는 상징, 흔적, 재현, 전통, 연상을, 행태 유도적 접근에 의해서는 영역, 중심, 방향, 결절, 경계를, 참여 유발적 접근에 의해서 활동, 체험, 이벤트, 프로그램의 표현 특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지닌다. 공공공간은 항상 요소들의 관계를 통해 변화하며 움직이는 유기적 공간의 특성을 지니므로 디자인 개념 및 방식에 있어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으로의 접근이 필요함을 일깨워준다. 이는 다양하고 복잡한 상호 관계에 대한 이해이며, 이것이 컨텍스트적 접근이다. 컨텍스트란 앞서 언급되어진 대로 하나의 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 관계에 의한 총체적 이해를 전제하며, 이러한 시각은 다양하고 유동적인 요소들의 관계에 대한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유기적인 조화와 관계 형성에 의해 공간의 정체성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다만, 본 연구는 올바른 공공공간의 디자인 계획을 위해 새로운 접근과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 표현 특성을 도출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한 제시는 미비함으로 추후 과제를 통해 도출된 9가지 세부 항목에 대한 각각의 적용방법과 구체적인 디자인 방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공간 계획에 있어 단순한 시각적 아름다움이나 기능적 만족보다는 공간에 내재된 의미, 사회·문화적 체험과 활동,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차별화된 공간 전략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새로운 공공공간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는 것에 그 의의를 둔다.

#### 참고문헌

1. 김철수, 도시공간의 이해, 기문당, 2001
2. 안창모, '이미지가 산다/ 정체성, 시각, 의미', 일민문화재단, 2004
3. 이호정, '도시, 장소, 그리고 맥락', 태림문화사, 2007
4. Brent C. Brolin, 맥락적 건축, 박두용 외 2인 공역, 세진사, 1996
5. Matthew. C 외 3인, 도시설계: 장소 만들기의 여섯 차원, 강홍빈 외 2인 공역, 도서출판 대가, 2009
6. James.J. Gibson,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ercepti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1979
7. 이정연, 도시수변공간의 공공영역 장소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8. 오미환, 권력의 공간화: 서울광화문광장의 공간 분석,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9. 장혜진,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도시 공간을 위한 아이덴티티 전략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10. 김지나·심우갑, 현대 건축의 콘텍스트의 해석과 반영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통권 제50집, 2006
11. 서수정 외,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위한 건축방향 및 추진방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8
12. 이경훈, 현대건축에 있어서 컨텍츄얼리즘의 도시적 의미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인제논총 13권 1호, 1997
13.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산연구 '과제명:정개천', 2009
14.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산연구 '과제명:광화문과 광장', 2009
15. 서울특별시, 남산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용역 보고서, 2009

[논문접수 : 2011. 10. 31]

[1차 심사 : 2011. 11. 15]

[2차 심사 : 2011. 11. 27]

[게재확정 : 2011. 12. 09]